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4월 1일(주일) 제1190호



오늘은 부활주일!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적은 종이를  
'회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칸타타, 부활절 계란 나누기, 전도, 세례식 등 풍성한 축하 행사  
고난주간 심야예배 '십자가, 하나님의 의' ... 예수님과 십자가 깊이 묵상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 160장).

오늘(1일)은 부활절이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세상 돌도 없이 기쁜 날이다. 이 기쁜 날을 축하하는 행사가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펼쳐진다.

오늘 서빙고와 양재 1~4부, 부천 2~4부, 수원 1~4부, 대전, 남양주, 평

택, 인천 1~2부, 강동 1~3부 예배에서 칸타타를 한다. 남양주 차세대는 주민들에게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며 전도를 하고, 강동 전도팀은 어제(31일) 나비쇼핑몰 앞에서 노방 전도와 공연을 했다. 양지는 오늘 2부 예배에서 세례식을 거행한다.

온누리교회는 지난주(26~30일) 고난주간 심야예배 '십자가, 하나

님의 의'를 드리며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했다. 고난주간 심야예배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사랑으로 드린 거룩한 낭비', '생명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주님의 섬김 때문에 사랑의 종이 됩니다', '예수 님처럼 깨어 기도해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 목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찬양하자”고 권면했다.

이현옥 권사(이천공동체)는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 은혜를 새롭게

경험했다”고 했고, 박윤형 성도(서대문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대면했다”고 고백했다. 교회 로비에 설치된 '회개의 십자가'에도 회개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났다.

올해 고난주간 심야예배에는 하루 평균 3,829명이 참석했다. 서빙고 1,678명, 양재 1,012명, 부천 211명, 수원 234명, 대전 200명, 남양주 99명, 평택 41명, 인천 102명, 강동 117명, 양지 135명이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내일부터 '예수님과 동행일기 세미나'

4월 4일까지 오전 10시 서빙고 비전홀

'예수님과 동행일기 세미나'가 내일(2일)부터 4일까지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막 오른다. 목회자와 사모, 신학생, 선교사가 대상이다.

예수님과 동행일기 세미나는 10년의 주제강의와 3번의 특강으로 진행된다. 주제강의에서는 '24시간 예수

님을 바라보는 삶', '영성일기 단원별 핵심강의', '영성일기 훈련 사역 소개' 등을 제목으로 유기성 목사, 박리부가 사모, 김승희 목사가 강의한다. 특강은 '영성일기 앱 활용', '영성일기 정착 로드맵', '설교와 말 씀기도'가 주제다. 이외에도 영성일기 간증, 실습, 조별 워크숍 등의 프

로그램도 이어진다.

예수님과 동행일기 세미나는 위지엠(With Jesus Ministry, 대표 유기성 목사)에서 주최하는 행사다. 위지엠은 영성일기를 통해 24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있는 단체다.

문의: 031-753-2703

070-4480-1591~2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 오늘은 CGNTV 개국 13주년

축하행사 및 특집다큐멘터리 방송

오늘(1일)은 CGNTV 개국 13주년이다. 이를 축하하는 행사가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각 캠퍼스 로비에 사진 스튜디오, 다과 코너 등이 운영된다. 개국 13주년 특집다큐 '리브소나타 10년, 1퍼센트의 기적'도 방송한다. 오늘 오후 3시 20분, 4월 3일 오전 9시 30

분에 방송된다. 내레이션은 배우 최지우가 맡았다.

한편 CGNTV는 지난달 30일 개국 13주년을 축하하고 미디어선교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선교헌신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박재원 직원(융합기술국), 고요한 직원(영상제작국)이 선교사로 헌신했다.



#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실 조금은 두려웠다. 드러난 이력과 연배만으로도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나보니 신앙심이 깊고 너무 좋은 할아버지였다. 지난 3월 21일,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이승률 회장(양재공동체)은 솔직한 매력이 돋보였다. 사소한 것까지 솔직하게 말하는 면에서는 호방함과 시원시원함이, 겸손하고 단호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에서는 강직함이 느껴졌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한바탕 수다를 떠느라 숨이 차고 피곤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출세해서 남 주자!

이승률 CBMC  
(한국기독교실업인회)

신임 중앙회장의 좌우명



하나님이 이끄시는 궤적을 따라가는 CBMC 이승률 회장.

이승률 회장은 이력이 화려하다. 종합건설 업체(반도이앤씨)를 운영하는 사업가이자 연변과학기술대학교와 평양과학기술대학교 대외부총장을 역임하는 등 인재양성에도 힘쓴 교육가이다. 또한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의 수장으로 동북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지난 2월, 한국기독교실업인회(CBMC) 신임 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또 하나의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 기독교실업인회 수장이 됐을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인데 독특한 이력이 하나 더 있다. 그는 불교철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아내한테 첫눈에 반해서 사귀고 싶다고 하니가 장모님이 펄쩍 뛰셨어요. 온갖 반대에도 제가 끝까지 버티니까 장모님이 ‘교회 갈래? 예수 믿으면 교제를 허락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다. 그렇게 교회를 접하긴 했는데 제대로 다닐 리가 없었다. 질풍노도와 같은 청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다. 치기어린 방황, 대입에서의 두 번의 좌절, 친구의 자살 등 곡절을 겪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 고민하다 군에 입대했고, 제대 후에는 진리를 찾기 위해 동국대 철학과에 입학했다.

“진리를 구하고자 불교철학을 공부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 1990년 1월 그 어느 날

진리는 그가 43세 되던 해에 찾았다. 그때가 1990년 1월 초였다. 2박3일 동안 금식기도원에 갔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났다. 당시 이 회장은 연말연시마다 며칠간 자녀들을 데리고 스키장에 가서 놀다 돌아오면 자신이 최고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1989년 12월 연말연시를 마치고 밤늦게 귀

가한 그의 앞에 세 자녀가 쫓르르 달려와 무릎 꿇고 부탁했다.

“아빠, 이번에는 스키장 대신 기도원에 가고 싶어요.”

솔직히 아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무슨 쓸데 없는 소리 하나고 타박했을 텐데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싫지 않았다. 사업구상도 할 겸 며칠 쉬다 오면 되겠거니 하고 새해 벽두에 자녀들과 함께 오산리금식기도원에 갔다.

“기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담배랑 라이터를 논독에 버리고 갔어요. 금식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 담배를 단 한 번도 피운 적이 없어요.”

그는 학창시절부터 담배를 피운 골초였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은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기적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금식기도 둘째 날이었다.

“한 장로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께 제가 농담으로 ‘실로암이 무슨 뜻이냐 불교 암자 이름도 아니고’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제게 실로암의 뜻을 설명해주시는데 그 순간 제 앞에 환상이 펼쳐졌어요.”

실로암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온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연못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자신이 소경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소경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친 산비탈길을 지나 연못까지 다다르기 위해서는 분명 기어가다시피 했을 거예요. 그렇게 도착한 실로암 연못에서 씻었더니 눈이 나왔어요. 뜨인 눈으로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언덕위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소경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제가 그 눈 뜬 소경이 된 것처럼 큰 감격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울

라오더라고요.”

그 사건은 부활의 은혜요, 완전한 거듭남이었다. 기도원에 다녀온 이후 교회에 곧바로 출석했다. 주일성수뿐만 아니라 매일 저녁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도 드렸다. 연말연시에는 온 가족이 함께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를 하는 것이 연례행사가 됐다. 큰아들이 군에 가기 전까지 10년간 온 식구들이 온전히 금식기도를 했다.

“제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장모님과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의 기도 덕분이에요. 특히 자녀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그 당시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었는데 그 조그만 아이가 아빠를 위해 금식기도를 했어요. 제 자녀들은 저의 진정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 하나님이 이끄시는 궤적

거듭남 이후, 이 회장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의 만남이 이어졌다. 하나는 김진경 총장(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 설립총장)과의 만남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기독교실업인회와의 만남이다.

지인들과 중국에 갔다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발견했다. 골프장 건설이었다.

“그 넓은 중국 땅에 골프장이 북경과 상해에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한중수교 전이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사업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골프장 건설을 위해 부지 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난관에 부딪혔다. 토지보상 문제가 잘 안 풀렸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고위급 인사를 만나기 위해 북경에 갔다가 같은 장소에서 김진경 총장을 만났다.

“김진경 총장이 중국 정부관계자에게 ‘조선족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요. 그래서 제가 뭐 도울게 없겠냐고 물었더니 ‘당신 같은 건설업자가 조금만 도와주면 참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어진 인연이 벌써 28년째다. 이 회장은 김진경 총장과 함께 연변과기대와 평양과기대 건축위원장을 지내면서 건물 17채를 짓고, 우수학생 유치와 교육에 힘써왔다. 김총장과 함께 교육사역을 하면서 다음세대 양육의 중요성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일생을 함께 동역해온 셈이다.

한국기독교실업인회와의 인연은 1992년부터 시작됐다. 한 골프 모임에서 한국기독교실업인회 임원을 만났는데 한국기독교실업인회에서 개최하는 전도집회에 오라고 초청을 했다. 그곳에서 평생의 좌우명을 새기게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 주제를 주제로 초청강사의 설교가 이어지는데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출세해서 남 주자’는 메시지가 가슴에 꽂혔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갖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직장이나 나라,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그때 그 메시지가 지금까지 저를 이끈 원동력입니다.”

그날 이후 이 회장은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출세해서 남 주자’를 실천하고 있다. 사업차 방문하는 곳마다 기독교실업인회 지부를 만들었다. 중국 연길, 청도, 북경, 심양, 상해 등 6개 지회를 창립했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이스탄불 지회까지 설립했다. 2001년에는 그동안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눈으로 확인했다. 이스탄불 지회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가는 비행기 안에서 펼친 잡지 속 세계지도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회장이 한국기독교실업인회 사역을 하면서 각 지역 지회를 만든 곳이 마치 벨트처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잡지를 펼쳤는데 선교단체들이 규정하는 ‘10/40 창’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지도의 오른쪽 연길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눈을 옮겼더니 그동안 한국기독교실업인회 지회를 만들었던 지역들이 보이더라고요. 중국-중앙아시아-터키 이스탄불까지 그야말로 ‘한국기독교실업인회 미션 벨트’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순간 에스더서의 ‘이 때를 위함이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역할 때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궤적이 있더라고요. 그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기독교실업인회의 새로운 수장이 된 그는 가슴 뛰는 도전을 이어간다.

“부족한 제가 한국기독교실업인회 회장이 된 것은 다음세대를 위한 창립선교의 비전을 실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국가와 사회의 앞날을 밝히기 위해서는 다음세대 양육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통일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도 크리스천과 기업인들이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남은 생을 바칠 것입니다.”



##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 종말과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3:47~50

“변화가 가능할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중보하고, 우리도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연속적인 비유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도 갑작스런 변화로 세상이 끝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대로 로마제국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가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져 자라나 추수 때까지 성장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쁨, 감격, 감동의 선택

예수님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씨앗이 열매 맺어 또 다른 씨앗을 만들고 그 씨앗이 자라나 또 다른 씨앗을 만드는 생명의 번식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추수 때를 기다리는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씨앗이 땅에 숨겨졌을 때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숨겨진 상태지만 그 씨앗이 점차 자라나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나라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과정을 통해 자라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는 값진 보물과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자는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보물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소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는 자신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이요, 감격이요, 감동의 선택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하면 기쁘게 투자하듯이 하나님 나라는 값진 보화와 같아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는 자신의 옛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47절).

예수님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분류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비유를 가장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제자 중에 대다수가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첫 번째 제자 그룹은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어부출신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의 첫 번째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학자, 서기관, 제사장 출신 등 소위 엘리트 그룹에서 택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어부 가운데서 택하셨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첫 번째 제자 그룹이 어부인 까닭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에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바로 어부입니다.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출신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 찢어진 그물을 낚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평범했지만 그 의미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부가 그물이 가득 차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류하는데 예수님이 나쁜 고기가 쳐해지는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물’은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물을 이 시대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교회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던져진 그물입니다.

존라이드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그물의 비유를 보이는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물을 바다에 던져 물고기를 잡는 어부이고, 교회는 어부의 도구가 되어서 고기를 잡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고기를 잡기 전에 그물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물을 걷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설명할 때 ‘온전케 된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벧전 5:10).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엡 4:11-12).

여기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그물을 걷는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걷는 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과 맥락이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걷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다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은혜의 하나님이 그물을 기워주신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그물은 찢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물이라 해도 여러 번 내리게 되면 바다 밑에 있는 장애물과 바위, 때로는 잡힌 물고기가 너무 많아 찢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과 교회공동체라는 그물도 여러 가지 문제로 찢어집니다. 충격적인 죄가 그물을 찢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찢기도 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부에게는 그물을 잘 손질하고 찢어진 곳을 걷는 것이 사명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찢어진 그물을 늘 기워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굳건케 하신다는 단어 앞에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47절 말씀에서 던져진 그물을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물의 종류는 저인망(drag net)입니다. 그물 아래 무거운 재질이 달려있어서 흠뻑 반경 안에 있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형태의 그물을 예로 드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물로 던져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온갖 영혼을 이끌어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교회는 ‘은혜의 그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마 11:28).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라는 말씀은 온갖 물고기를 끌어오는 어부와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그물은 불완전합니다. 그물을 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온갖 물고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펠전 목사님께 십여 명의 성도들이 찾아와 자신이 다닐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펠전 목사가 질문했습니다.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조건은 ‘성도들 간에 사랑이 충만하고, 목사의 설교가 졸리지 않고 진리만 전하며, 선교에 헌신한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조건 열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스펠전 목사가 죄송해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교회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실망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스펠전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면 절대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렇게 좋은 교회를 왜 나가지 말라고 합니까?”라고 묻자 스펠전 목사가 대답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불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스펠전 목사님은 점잖게 성도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물이 찢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찢어진 부분을 보고 비난하는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 특별기고 창조과학 VS 유신진화론

## 성경과 과학에 대한 바른 자리매김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  
의대 교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을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식사를 통해 모범을 보이심으로 그

곳에 온 군중들이 감동을 받아 자신의 먹을 것을 내놓으면서 모두가 함께 풍성하게 나누었고, 그 음식이 얼마나 많았던지 남은 음식을 거두어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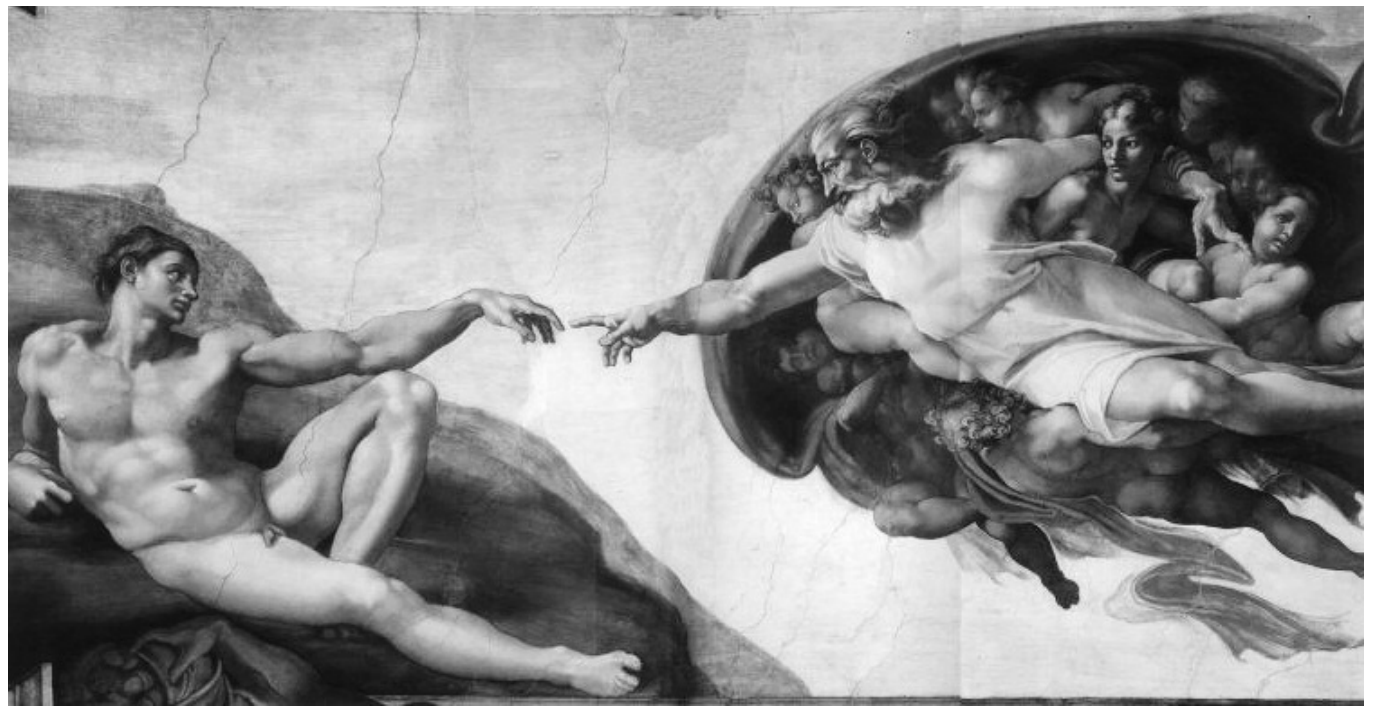
또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도 실제로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물 위’로 번역한 것이 오류이고, 원래 ‘물가’로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물 위를 걸었다고 믿는 것을 ‘순진하지만 유아기적 신앙’이라고 폄하한다. 문자주의에 사로잡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잘못된 신학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물 위’를 ‘물가’로 번역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함께 물 위를 걷고, 그 이후 두려워해서 물에 빠진 사건은 있을 수 없는 거짓된 기록이 되고 만다.

## 성경에 기록된 초월적 사건과 과학

이처럼 성경의 초월적 사건을 평범한 사건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와 관련된 기록 전체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거나 거짓이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이성’을 앞세우면서 성경에 기록된 초월적 사건을 비초월적인 사건으로 만드는 것이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초월적 사건들을 과학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어 해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당신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질서를 언제든지 변화시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에 의해 잠시 피조세계의 질서를 벗어나는 초월적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은 피조세계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에서 자라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초월적 사건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부끄러운 것이 없다. 우리들은 모두 논리적인 과



정을 통해 모르는 것을 이해하는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리적 이해를 통해 믿게 되는 사건이 아니라 믿어야 이해되는 초월적 사건을 성경에서 대할 때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초월적 사건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믿음으로 이해해야 하는 초월적 사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창조’와 ‘부활’이다. 왜냐하면 창조와 부활이 믿어지면 다른 어떤 초월적 사건도 믿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창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공간, 물질, 생명, 인간 등이 전혀 없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우리가 시간, 공간, 물질이 없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면 창조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 공간, 물질이 없는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창조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부활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죽는 것은 예외가 없는 법칙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회생하는 일은 가끔 목격되지만 진짜로 죽어서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한 번도 목격된 적이 없고, 의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부활의 몸을 입은 첫 번째 사람이 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리라는 믿음은 부활신앙의 꽃이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서도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믿는 기독교는 ‘혁명을 꿈꾸다 죽은 예수’가 참된 예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활하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에 빠진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 부활을 부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를 노골적으로 부인하고 진화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말로는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초월적 사건으로써의 창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이뤄진 창조’가 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창조를 초월적 사건으로의 창조라고 믿는 것은 문자주의에 사로잡힌 해석 내지는 유치한 해석이라고 말한다.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 시대, 당연히 진화를 인정하고 창조를 과학적인 이론인 진화론에 맞춰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동안 교회에서 널리 인정해왔던 창조에 대한 창조과학적 해석은 편협하고 독선적이며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교회에서 널리 퍼지고 있으며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창조에 대한 바른 해석은 무엇인지 다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 창조 사건을 둘러싼 논란

창조과학적인 입장과 진화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창조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양 진영은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진화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창조과학을 비판하는 주된 주제는 창조 자체보다 도리어 ‘연대’ (年代)에 대한 문제이다. 창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연대에 대한 해석이 오류이기 때문에 창조에 대한 주장도 오류라는 것이다. 사실 창조에 대한 해석과 연대에 대한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창조과학이 거론될 때마다 연대에 대한 해석이 거론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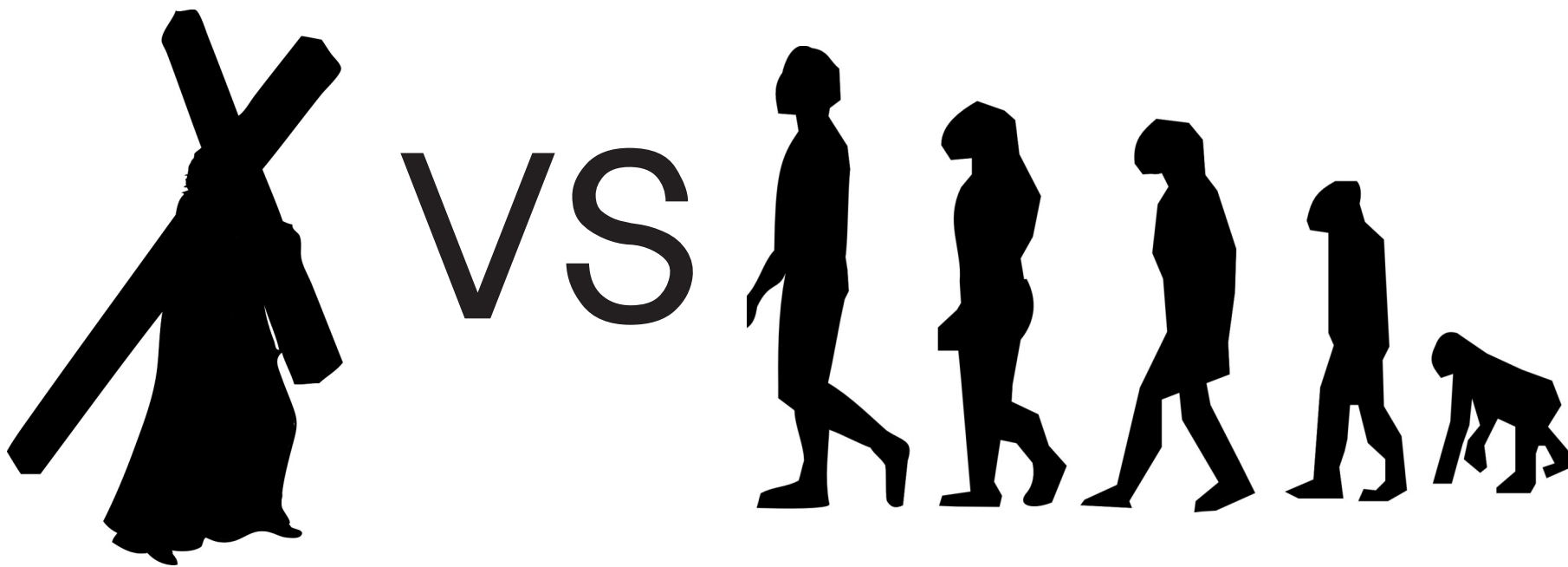
다. 이 때문에 초월적 창조 사건에 대한 논란은 창조와 연대 두 가지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창조에 대한 해석

창조과학자들은 창조를 당연히 ‘초월적 창조’라고 해석한다. 또한 창조의 과정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루하루 순서대로 전개되었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우주 창조에 대하여는 의견이 다양인데,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첫째 날 이미 우주가 만들어졌는데 넷째 날에 지구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났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반면 진화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화론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빅뱅에 의해 우주가 만들어졌고, 물질들로부터 우연히 생명체가 태어났고, 인간도 진화의 과정을 통해 오랜 시간 후에 출현했다고 믿는다. 유신진화론 혹은 진화창조론은 진화론을 인정하면서 이 진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동물은 물질로부터 진화되어 이 지구상에 출현한 것이며, 이 동물이 진화되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진화의 과정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것이다.

유신진화론의 초창기 모습은 창조 주간의 하루하루가 진화의 과정을 나타내며, 인간만은 초월적인 과정을 통해 창조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이론이었다. 성경의 기록과 진화론을 조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유신진화론이 더욱 발전하면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라졌다. 성경은 과학을 모르는 옛날 사람들을 위한 기록이기 때문에 과학을 통해 많은 지식을 갖



춘 지금은 최신 과학이론에 의해 성경을 다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진화의 과정이 일어나도록 창조하셨다면 당연히 피조세계를 연구하는 과학을 통해 진화론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진화론은 다양성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진화라고 주장할 뿐 진화 자체에 대한 어떤 과학적 증거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과학적 증거를 갖추지 못한 진화론에 따라 성경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창조론자들은 진화론에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과학에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둘러서 말한다. ‘진화론 = 과학’이라고 전제해놓고, 진화론이라는 용어 대신 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이 마치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진화의 과정도 사실이 되어야 하고, 치열한 생존경쟁과 돌연변이, 자연선택을 통해 진화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 되어야 한다. 피조세계의 질서 모두를 진화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 아니 하나님은 계셔도 피조세계를 진화의 과정에 맡기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신진화론자들은 하나님과 진화론을 연계시키고 나서 생기는 하나님 부재 현상을 도리어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완벽하게 진화되도록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개입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세상이라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신진화론 또는 진화창조론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창조-타락-구원-심판-새 하늘과 새 땅’을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도리어 인간의 죄 때문에 파생된 피조세계의 깨어진 모습을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라고 우기고 있다.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를 믿지 못하면, 타락도 구원도 믿지 못하게 되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화창조론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

## 우주 연대에 대한 해석

유신진화론자들은 지구와 우주의 연대를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창조과학자들은 초월적 창조와 함께 ‘짧은 연대’에 대한 주장을 강력하게 해왔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6천여 년의 시간 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기간과 창세기 족보를 근거로 연대를 추정하여 지구와 우주가 창조 이후 6천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면서 1만 광년 이상 떨어진 별들이 무수히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6천여 년의 연대에 대한 주장은 매우 비과학적인 주장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창조과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방어 이론과 해석을 갖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대에 대한 해석은 초월적 창조 사건에 대한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경 해석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 기독교의 대표적 초월적 사건 ‘창조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창조, 타락, 구원, 심판, 새 하늘, 새 땅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창조가 진화과정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 증거가 없는 진화론을 무비판적으로 믿는 것이며,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반면 연대에 대한 문제는 기독교의 근본교리와 충돌되는 내용이 아니며, 단지 짧은 연대에 대한 주장에는 과학적인 내용과 성경 해석의 내용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지구와 우주에서 발견되는 많은 현상들이 빅뱅이론에 의해 주장되는 100억년이 넘는 우주, 45억년이 넘는 태양계의 나이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지구와 우주의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진화론적인 오랜 연대가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가능할 뿐이다. 지구와 우주가 진화론적인 연대처럼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과 실제 연대가 6천여 년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별개의 내용이다. 왜냐하면 6천여 년이라는 주장은 과학적인 증거가 아닌

성경의 해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경해석과는 다른 해석을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매우 많지만, 성경의 다양한 해석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를 벗어나는 해석에 대하여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는 다양한 해석 중의 하나를 무시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창조과학자들이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를 문자적으로 믿고, 창세기 족보의 나이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연대를 추정하는 것은 분명 성경을 해석하는 한 방법이다. 그 결과 나타난 6천여 년의 짧은 연대는 거대한 우주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주에 대한 우리의 과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대한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지구에서 멀고 가까운 위치에 존재한다고 믿지만, 우주가 3차원적인 세계가 아니라 복잡한 차원의 세계

믿는 것이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과학과 이성에 기반한 나의 해석을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보다 우위에 놓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성경의 대표적인 초월적 사건인 창조와 부활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의 근본 교리이며 과거와 미래의 역사인 ‘창조-타락-구원-심판-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유신진화론 또는 진화창조론은 나름대로 성경과 과학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비난할 수만은 없다. 무신론적인 진화론을 배격하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진화론으로 변화시키려는 쉽지 않는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성경도 진화론을 수용해서 성경과 진화론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독교가 되도록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렇지만 이들의 열심 있는 노력의 열매는 무엇이 될까? 진화론을 거부하면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성경을 진화론에 맞춰 해석하면서 성경 기록보다 진화론적 해석을 우선시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치열한 생존경쟁과 자연선택이 되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진화되는 존재로 선택받기 위해 열심히 약한 자들을 짓밟으며 싸워야 하는 것일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화론의 타당성을 알리는 노력보다 창조과학을 비난하는 모습이다. 진화론은 과학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당연히 받아들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창조과학은 잘못된 우주 연대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초월적 창조에 대한 주장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자신들이야말로 올바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주장도 올바른 것이라고 스스로 전능한 심판관의 위치로 올려놓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가 초월적 창조라는 것은 창조과학자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믿는 모든 신학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다. 초월적 창조를 창조과학자들만의 주장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의 초월적 사건을 부정하는 자신들의 모습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법인 것이다. 진리는 값지지만 단순하다. 창조와 부활의 초월적 사건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인 것이다.

## 초월적 창조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다

성경에 기록된 초월적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과학과 이성을 존중하는 것은 전혀 모순된 일이 아니다. 초월적 사건을 믿으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고, 이성적인 생각과 행동을 장려할 수 있다. 실제로 위대한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과학과 이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과학과 이성이 성경말씀보다 우위에 있다고

#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청년들

## 하나님의 양식 먹고 거듭나는 현장 '홀리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청년들이 있다. 인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큐티 묵상모임 '홀리밀(Holy Meal)'에 꼭 빠진 청년들이다. 홀리밀은 평일 오전 7시 인천 맥도날드 구월아시아드DT점과 송도 프리스페이스 3층에서 진행되고 있다.

홀리밀에서 만난 청년들은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고 있다.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홀리밀을 빠질 수 없는 이유이다. 홀리밀은 보석 같은 청년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현장이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홀리밀 청년들.

“홀리밀(Holy Meal)은 최고의 맛집이에요.”

홀리밀을 소개하는 인천 온누리교회 대학부 대표MC 신주용 형제(26세)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는 홀리밀에 나오면서부터 말씀 읽는 재미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 말씀을 맛보면 맛볼 수록 기쁨이 샘솟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그 의미를 알려 주는 것만 같았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

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시간이 정말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어요.”

하루를 보내는 태도도 달라졌다. 더 부지런해졌고, 하루를 더욱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한다. 아침 7시에 시작하는 홀리밀에 가려면 더 일찍 자고, 더 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생활이 규칙적일 수밖에 없다.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되고 궁금해

서 잠자리에 들 때마다 행복한 생각에 잠기는 것은 덤이다.

홀리밀(Holy Meal)은 인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서 평일 오전 7시에 진행하고 있는 큐티 묵상모임이다. 처음에는 대학청년부 새 벽예배 ‘홀리스타(Holy Star)’를 동일하게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다. 예배를 구성할 만큼 인원이 충분하지 않았고, 장소를 빌리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의 열정을 막을 순 없었다. 홀리스타보다 규모는 작지만 알차고 유익한 홀리밀이 탄생하게 됐다. 2016년 5월 인천 맥도날드 구월아시아드DT점에서 처음 시작됐다.

홀리밀(Holy Meal)이라는 이름은 맥도날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해피밀(Happy Meal)이라는 상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다’는 의미다. 재작년 1월부터 인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송도 프리스페이스로 예배처소를 옮기면서 지난해 9월부터 프리스페이스에서도 홀리밀을 진행하고 있다.

홀리밀은 홀리스타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오롯이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홀리밀은 기도, 말씀 묵상, 말씀 나눔, 기도제목 공유, 기도, 주기도문 순으로 진행된다.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청년들이 직접 인도한다. 나눔도 풍성하다. 소규모로 진행되다보니 나눔의 내용이 깊다. 함께 울고, 공감하고, 치유되는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

### 말씀을 먹고 마시며 생긴 변화들

인천 온누리교회 청년들의 신앙이 홀리밀(Holy Meal)에 참가하면서부터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이른 아침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삶도 회복되고 있다.

국영기 형제(31세)는 홀리밀에 참여하면서 거듭남을 경험했다. 거듭남 이후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어졌다. 그의 신앙이 처음부터 좋았던 것이 아니다. 그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런 그가 2016년 말부터 인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홀리밀에 나가면서 달라졌다.

“말씀 나눔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방황했던 시간들이 결코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다른 친구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저도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홀리밀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매일 나가기 시작했다. 홀리밀에서 받은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일 말씀으로 삶을 채우다보니 삶의 목적도 분명해졌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더니 공허함이 사라졌어요.”

홀리밀은 그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삶의 중심이 되었다. 그가 하루라도 홀리밀에 빠지지 않으려는 이유이다.

인천 온누리교회 홀리밀에서 한번 은혜를 맛보면 그 맛을 절대 잊을 수 없다. 이것이 홀리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다. 인천 온누리교회 청년부 대표MC 강지훈 형제(29세)도 홀리밀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을 얻는다. 홀리밀로 하루를 시작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은 차이가 난다고 했다.

“정말 피곤해도 홀리밀로 하루를 시작하면 덜 피곤하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정반대예요.”

최은지 자매(30세)는 홀리밀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진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먹여 주시는 말씀이 그녀를 위로하고, 교훈하기 때문이다.

“홀리밀에서 받은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홀리밀 참가자 간증



신주용 형제  
(인천 온누리교회  
대학부 대표MC)

한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그만큼 자유로운 예배의

자리다. 하지만 평일 오전 7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굳은 결단 없이는 쉽게 올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하다.

홀리밀과의 첫 만남이 뚜렷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가장 친한 친구와의 첫 만남이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홀리밀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친근한 예배다. 나는 매일 아침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해주셨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셨고, 나는 하나님께 고백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 듣게 하셨다. 그 덕분에 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

###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눌 수 있었다.

홀리밀 모임에서 나누는 교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게 해준다.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각자의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한대로 응답해주시기 때문이다.

홀리밀은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작은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크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 같다. 물론 매일 홀리밀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혼자 그 자리를 지켜야 할 때도 많았고, 아무도 지키지 않은 날 또한 허다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자 하는 자리에 아무도 나오지 않을 때면 홀리밀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을 때에 느끼는 죄책감도 있었다. 하지만 홀리밀은 그 누구에게도 강제되는 자리가 아니다. 묵마른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허락된 자리다.

홀리밀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갈급함으로 말씀 앞에 서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갈급한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가장 크게 받아 주신다는 것이다.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리밀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 “전도는 생활입니다!”

## 현대인을 위한 ‘맞춤전도’와 ‘복음광고’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 문제는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고 막상 하려면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도는 하고 싶은데 용기와 기술이 부족한 성도들을 위한 맞춤형 세미나가 있었다. 지난 19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 ‘온누리 맞춤전도 세미나’가 그것이다. 이 세미나에서 거듭 강조한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전도는 생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생활에서 전도를 실천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오늘날만큼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없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크리스천들의 실천 없는 믿음 때문이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단들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교회는 나쁜 곳이고, 크리스천들은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둘째, 새신자나 넌크리스천들을 위한 쉽고 거부감 없는 기독교 용어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새신자들에게 “기쁨부음을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가정해보자. 신앙 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성도들은 그 말의 의미를 쉽게 알지만 난생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아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따라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용어를 노출해서 괴리감을 없애야 한다.

셋째, 교회와 세상의 문화적 수준차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수준이 앞섰다. 당시에는 교회 문화 자체가 전도의 통로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상황이 역전됐다. 따라서 일상에서 기독교 용어를 익숙하게 접하고,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뒤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떠오른 대안이 바로 ‘복음광고’다. 복음광고는 말 그대로 일간지, 지하철역 와이드, 버스정류장 등에 복음을 광고하는 것이다. 시대에 발맞춰 등장한 새로운 전도 패러다임이다.

### 맞춤전도 이렇게 실천하라!

맞춤전도와 복음광고를 통해서 생활에서 전도하는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자.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 동창, 직장동료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창한 이벤트를 열어서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좋지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부모 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왼쪽)와 복음의전함의 부활절 복음광고(오른쪽).

핵심전략은 철저하게 전도대상자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다. 근사한 양복 한 벌을 체형에 맞춰 입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전도방법이 바로 ‘맞춤전도’다. 맞춤전도는 전도대상자의 필요와 복음과의 접촉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생활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다. 이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전도방식이다. 맞춤전도는 공간의 크기와 아무런 상관없이 없다. 교회전체, 공동체별, 예배별, 주일학교별, 순별로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맞춤전도는 규모를 작게 할수록 효과가 좋다. 전도대상자들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맞춤전도를 할 때에는 다섯 가지 유의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대상자가 중심이다. 전도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둘째, 단계별로 접근해야 한다. 전도대상자를 위한 기도모임부터 시작해서 맞춤전도를 마치는 순간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셋째, 생활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어색함을 느끼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도집회의 주제는 ‘해바라기’, ‘브라보’, ‘챔피언’ 등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넷째, 팀을 구성해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간식팀, 데코팀 등 봉사자들의 달란트에 따라 팀을 구성해서 섬긴다. 다섯째, 매체를 적극 활용한다. 영상, 포스터 등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매체를 활용하면 전도효과가 배가된다.

맞춤전도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도대상자의 필요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말이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가장 갈망했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다가갔고, 사마리아 여인에게에는 가장 갈망했던 물

을 비유로 들면서 복음을 전했다. 친구가 없었던 삭개오에게는 친구로 다가갔다. 예수님이 전도대상자들의 필요에 따라 다가가자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자가 되었고, 삭개오는 자신의 물질을 가난한 자를 위해 내어놓을 것을 결단했다. 이처럼 맞춤전도의 성패는 대상자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노후와 자녀 교육 등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희망이다.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요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처럼 전도대상자의 가장 갈급한 필요를 파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필요를 채워주도록 돕는 것이 맞춤전도의 핵심이다.

맞춤전도는 6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대상자를 선정한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본다. 그 중에서 연락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적는다. 2단계는 전도대상자의 정보를 파악한다. 직업이 무엇이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가장 갈급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3단계는 중보기도다.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해도 무방하다. 기도 동역자 혹은 순에서 기도차트를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다. 빈 방석을 놓고 전도대상자를 떠올리며 기도하는 것도 좋다. 4단계는 대상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초대하는 것이다. 5단계는 대상자를 위해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식사 나눔, 감사편지 낭송, 게임, 축복송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단계에서는 즐거움(Fun), 의미(Meaning), 말씀(Message)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6단계는 사후관리다. 직장 심방, 부활절과 성탄절 같은 교회 행사에 초대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교회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

복음은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합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은 단순히 믿지 않는다는 사실보다는 복음의 대가라고 믿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어떤 가도, 희망도 약속도 할 수 없음에 복음은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대와 희망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온 몸으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세상에 살아 오셔서 기쁨과 생명이 있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천하성령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기쁨을 경건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께 고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았고 부활 생명을 가진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25-26-

### 또 다른 방법 ‘복음광고’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복음광고다. 복음광고는 광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복음의전함은 일간지, 지하철역 와이드, 버스정류장 등 대중매체 광고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바쁜 현대인들을 대면하는 것보다 미디어 접촉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이는 효과도 있다.

(사)복음의전함은 한국과 6대주에서 광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고 있다. 지금까지 북아메리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가로세로 14m 대형 간판광고를 시작으로 아시아(방콕), 오세아니아(시드니와 오클랜드), 유럽(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서 복음광고를 했다. (사)복음의전함은 복음광고를 전시하는 동시에 한 인교회들과 함께 복음광고 전단지들을 돌리며 직접 복음을 전하고 있다. 실제로 김태경 성도(분당우리교회)는 “복음광고판을 보고 난생처음 눈을 감고 기도를 했고, 교회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복음광고는 누구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복음광고를 인쇄해서 전도지로 사용하거나 복음광고를 현수막으로 출력해서 교회 외벽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된다. 복음광고를 SNS 프로필사진으로 설정하거나 친구들에게 공유할 수도 있다.

복음광고 전도지나 현수막이 필요한 성도들은 (사)복음의전함에 전화로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 이미지는 (사)복음의전함 사이트(www.jeonham.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문의: 전도사역본부 02-3215-3649

(사)복음의전함 02-6673-0091

특집 CGNTV 개국 13주년 1.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2. 한 영혼을 위해 ‘더 가까이’

# 한 영혼을 위해 ‘더 가까이’

## 국내 산간벽지 목회자와 CGNTV의 만남

CGNTV의 영향력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엄청나다. 국내 산간벽지 목회자들에게 CGNTV만큼 고맙고 좋은 친구가 없다. 전라남도 완도시 횡간도 박상규 목사와 충청북도 옥천군 인포리 김준영 목사에게 CGNTV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세상 둘도 없는 친구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CGNTV와 함께 동역하는 박상규 목사(왼쪽), 김준영 목사(오른쪽).

해남 땅 끝에서 배를 타고 한 시간가량 가면 횡간도가 나온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에게 대패한 왜군들이 퇴각하면서 흘려뱉다 해서 ‘횡간도’라 불린다. 횡간도는 찾는 이들이 별로 없는 아주 조용한 섬이다. 박상규 목사(횡간도 중앙교회)는 바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다. 박 목사는 농어촌목회에 잔뼈가 굵다. 목회 경력 30년인데 대부분 농어촌 교회에서 사역했다.

박 목사가 횡간도로 온 것은 말 못할 사연이 있다. 그는 2년 6개월 동안 목회를 그만두고 막일을 하며 산 적이 있다. 목회의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교회 내부 싸움 때문이었다. 성도들이 돈과 자리를 놓고 얼마나 다투는지 모른다. 몇몇 임직자들이 박 목사에게 대놓고 교회 돈을 횡령하자고 유혹하기도 했다.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성도들의 공격이 시작됐다.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박 목사는 목회의 소명을 잃어버렸고, 팔 셋 중에서 둘은 교회를 완전히 떠났다.

공백기 동안 안 해본 일이 없다.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뱃속까지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삶은 잔인했지만 성도들의 땀과 눈물을 이해할 수 있어 감사했다.

그에게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힘든 일을 참아가며 한 것이 무리가 됐던 모양이다. 2016년 겨울 심정지 상태로 길가에 쓰러졌다. 간신히 병원에 옮겨져 생명을 구했다. 그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정신이 번쩍 났다. 한시라도 빨리 복음을 전해야 했다. 그렇게 횡간도에 왔다.

몸을 다 추스르지도 못했지만 횡간도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사는 것도 문제였지만 목회가 더 큰 문제였다. 외부와 단절된 지역, 적은

현금, 강한 토착신앙이 박 목사를 흔들었다. 자칫하면 다른 목회자들과 교류하지 않고, 먹고 살 돈이 부족하니가 주민들 여장에 가서 일해서 돈을 벌고, 사머니즘이 강하니까 전도에 힘쓰지 않을 것 같았다. 박 목사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무늬만 목회자가 될 순 없었다. 바로 그때 구세주가 나타났다. 바로 CGNTV다. 박 목사가 섬에서 목회하면서 느낀 가장 큰 어려움이 영적 공급원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CGNTV가 그 필요를 채워줬다. 목회자들은 재교육과 다양한 공부 필요하지만 섬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CGNTV가 안성맞춤이었다.

### 횡간도 CGNTV 홍보대사

박 목사는 평소 CGNTV 애청자였다. CGNTV에 좋은 콘텐츠가 많다는 것을 알고 매일 CGNTV를 시청하면서 공부하고, 영의 양식을 먹고 마셨다. 박 목사의 못 말리는 CGNTV 사랑은 이뿐만이 아니다. 박 목사는 일정표를 만들어 CGNTV를 시청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CGNTV 큐티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오후에는 CGNTV의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박 목사에게 CGNTV는 신학교나 다름없다.

CGNTV를 시청하면서부터 달라진 게 또 하나 있다. 전에는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CGNTV를 보면서 목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천하고 있다. 요즘에는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쉬고 갈 수 있는 ‘교회민박’을 구상하고 있다. CGNTV를 시청하면서 강해설교집도 쓰고 있다. 횡

간도 CGNTV 홍보대사로도 활동한다. 이웃이나 목회자들에게 CGNTV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CGNTV가 횡간도에 안테나를 설치해줬다. 이제는 고향질 방송으로 CGNTV를 볼 수 있다. 박 목사는 CGNTV 덕분에 목회에만 열중할 수 있게 됐다.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일이 없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

### 일해서 성도들 빛 갠주는 목사

직접 일해서 성도들의 빛을 갠주는 목사가 있다. 충청북도 옥천군 인포리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준영 목사(더함교회)가 그 주인공이다. 김 목사는 30대 젊은 목회자다. 평균연령 69세 성도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 김 목사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를 꿈꿨다. 28살 전도사 시절에는 옥천 시내에서 가정교회를 개척했다. 성도라고 해봐야 한 손에 꼽힐 만큼 적었지만 정말 행복했다. 지금은 그 교회가 어르신 30여 명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로 성장했다. 어르신 3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를 섬기느라 김 목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른다. 택배물류센터, 막노동, 농사, 식당, 세차장 아르바이트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세차장에서 일하고 받은 월급으로 독거노인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일부 성도들의 빛을 갠줬다.

“하나님의 은혜로 방황하던 어르신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됐어요. 부채를 해

결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조금씩 갠드렸어요.”

목회하라 일하라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할 것 같았다. 정말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목사는 이것이 참된 목회,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5년을 보냈다. 김 목사가 보여준 특별한 사랑에 성도들과 마을 사람들이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지금 김 목사가 섬기고 있는 더함교회는 성도들과 주민들을 위한 사랑방이 되었다.

더함교회 성도들의 면면이 화려하다. 전과가 있는 성도, 젊은 시절 전국에서 알아주던 도박꾼, 옥천 시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강패까지 듣기만 해도 무서운 성도들이 많다. 개성 강한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 말썽도 많았다. 성도들 간에 싸움을 말리기도 수차례였다. 더군다나 인포리 주민들이 처음에는 더함교회가 마을에 세워지는 것을 정말 싫어했다. 한 어르신은 담배막에 교회 건축을 결사반대 한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결국 ‘포교금지’와 ‘예배소음금지’라는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인포리에 더함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지금은 인포리 주민 5명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 교회 건축을 결사반대했던 어르신은 최근 교회가 이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계신다.

### CGNTV와 더함교회의 약속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김 목사에게 아주 특별한 친구가 하나 있다. 바로 CGNTV다. 김 목사에게 CGNTV는 아주 특별한 동역자다. 김 목사가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CGNTV가 찾아왔다.

“제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목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닌데 출연해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지역 교회에서 제가 이상한 사역을 한다고 비판을 받은 적도 있어서 염려도 되었고요.”

얼떨결에 CGNTV KNOCK에 출연하게 됐는데 그 영상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김 목사의 이야기가 페이스북 KNOCK 채널에서 누적조회수 92만, 공유 1만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다. 김 목사의 CGNTV 출연은 특별한 인연들을 만나게 했다. 전국 각지에서 더함교회를 후원하고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생겼다. 400명이던 페이스북 친구가 2800명까지 늘었다.

김 목사에게 CGNTV는 가족이다.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인연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CGNTV가 김 목사와 더함교회를 잊지 않고 찾아와 평생 함께 동역할 거라고 약속했다. CGNTV에 큰 감동을 받은 김 목사도 약속을 했다. 더함교회도 CGNTV와 평생 함께 동역할 거라고 말이다.

## 부활절에 부르면 좋은 찬송

# “예수 다시 사셨네!”

1.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  
네 예수 내 주

2.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  
네 예수 내 주

3.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  
리네 예수 내 주

후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  
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독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부  
활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타종교 어디에  
도 부활의 소식은 없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 곳곳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부활절인 오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  
물러’라는 찬송을 불러보기를 권한다. 이

찬송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아주 간결하면  
서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찬송이다.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인 로리(R. Lowry)  
박사가 1874년에 작시·작곡한 부활절 찬  
송가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눅 24:6)는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찬송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기  
쁨을 장엄하게 나타내기 위해 점차적으로  
클라이맥스 부분이 올라가고, 본 절을 짧게  
구성하는 대신 후렴의 합창을 유니송  
(unisson, 제창)으로 하여 웅장한 합창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부활의 기쁨  
을 음악적으로 잘 표현한 찬송이다. 예수님  
은 예언하신대로 요나의 기적을 자신의 죽  
으심과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다.

마태복음 27장 62~66절 말씀을 보면 예  
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  
의 생전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이 불안해  
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무덤을 지키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첫째,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의 계획으로  
주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  
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  
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  
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  
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  
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마  
27:62-64).

둘째, 군대의 힘으로 주님의 부활을 막아  
보려 했고, 인봉한 돌로도 주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  
으니 가서 함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  
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마 27:65-66).

셋째, 황금만능으로 주님의 부활을 막으  
려고 했다(마 28:12~14).

그러나 이 모든 방법으로도 예수님의 부  
활을 막지 못했다. 그들은 치사한 변명과  
여러 방법으로 주님의 부활을 막지 못하자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기절설’을 주  
장해보기도 하고, ‘시체도난설’을 내놓기  
도 했다. ‘환상설’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분명 다시 살아나  
셨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구  
주로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처럼 우리의 몸도 홀연히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을 상상하며  
‘무덤에 머물러’  
찬송을 박찬 감  
격을 가지고 뜨  
겁게 불러보기를  
원한다.

“사셨네 사셨  
네 예수 다시 사  
셨네!”



김남열 장로  
(동작공동체  
교회음악박사, 맨하탄여성  
선교합창단 이사장)

## 황숙희 권사의 백수(白壽)로 이어진 삶과 신앙의 지혜서

#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변화 속에서 불가항력적으로 겪어야 했던  
어려운 이들을 무사히 넘기고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갈렙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80대였다. 흥미 있는 것은 85세  
에 40대처럼 힘이 왕성했다는 것이다. 갈렙은  
모세에게 약속받은 헤브론 땅을 요구하였다.  
헤브론에 사는 아낙 자손과 싸워 그 성을 자신  
의 소유로 삼기 원했다. 갈렙은 크나큰 과제를  
선택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  
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  
을 믿었다.

눈을 번쩍이며 강한 목소리로 결론짓기를 ‘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말씀하신 대로 내  
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했고, 마  
침내 아낙 자손을 쫓아냈다. 갈렙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확신함으로써 85세에도 청춘같  
이 힘이 왕성했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활동하  
였다. 부와 건강의 축복도 받았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  
청한 인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사람이 일하  
는 것도 아름답지만 나이 든 사람이 무엇인가  
에 열중하는 모습은 보석같이 빛나 보인다. 사  
람은 생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놀고 먹으며 아  
무것도 안하고 살 수만은 없다. 나이든 사람보  
다 이상을 잃고 게으른 사람이 더 늙어 보인  
다.

“I can do it”,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이웃에  
게 뿐만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어려  
서부터 외로움이나 실의를 겪으며 살게 마련  
이다. 나 자신이 아무 가치 없다고 속상하게  
느껴질 때 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조그마  
한 일이라도 나에게 도움을 준다면 마음이 편  
안해지고 내 주위가 밝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  
다.

늙었다고 땅만 바라보고 누가 나를 소홀히  
대접하지 않을까 속상해 한다면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없다. 나 스스로를 변화시켜 쓸모 있  
는 사람이 되려면 움직이고, 생각하고,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계속 노력해  
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세상에서 좀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위기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

50년 만에 이룬 정권 교체다. 새로운 대통령  
에 대한 기대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에 더욱 크다. 그 기대는  
부정, 부패, 정경유착, 정치권 특혜, 부정직한  
것들을 뿌리 뽑고 정치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는 도덕성과 양  
심을 되찾는 것이 문제이지 IMF의 돈을 얼마  
나 빌렸는가는 문제가 아니다.

위기는 극복하는 것이지 피하는 것이 아니  
다. IMF의 한파와 정치 불안으로 온 국민이  
실의에 빠져 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를 극복하겠다는 불굴의 용기요, 강건한 마  
음의 상태일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마음에 청  
춘을 간직하며 이겨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IMF, 저성장, 고실업, 고세금이  
라는 엄청난 한파에 떨어야 하고 금융, 기업,  
정부, 가계 모두가 미증유의 소용돌이에 휘말  
리게 되었다.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용’으  
로 부러움을 샀던 한국이 1910년 경술국치 이  
후 87년 만에 제2의 국치를 맞은 것이다. IMF  
실타구니라는 쓴 약이 과연 보약이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중국의 옛말에 일인득도 계견승천(一人得道  
雞犬昇天)이라는 말이 있다. “주인이 출세하  
면 개와 닭도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뜻이다.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소속 국회의  
원들과 관계자들이 권력을 잡고 행사한다는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왕과 비>같은 시대극  
을 볼 때, 현 정치인을 볼 때 나라와 국민을 위  
해 정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옛 역사에  
당과 싸움으로 나라를 망친 이들이 있듯이 권  
력 쟁탈, 정권 유지에 급급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20세기 가장 전형적인 독재자인 히틀러나  
일본의 도조도 억만금을 긁어모으지는 않았  
는데 계속해서 드러나는 정치인들과 관료들  
의 축재 의혹은 참으로 우리 역사의 아픔이요,  
부끄러움이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한다. 이것  
을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인정  
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대로 살겠다는

인본주의를 선언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담과 하와처럼 악인의 꾀에 넘어가는 자, 하  
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 자기를 높  
이고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자이다. 바울 사도  
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고 외친 것  
같이 믿노라 하는 우리 마음속에서도 때로 자  
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  
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부패  
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명령  
하신다.

“주여,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  
님의 뜻을 이루소서. 죄악이 만연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찾  
으시는 의인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나 자신에게서 찾게 하소서.”

세상이 본질상 부패한 인간에 의해 통치되  
는 한, 참 공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세상의 빛  
과 소금인 성도들에게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  
할이 부여되었음을 잊지 말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영적, 육적으로 병든 몸이  
치유되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하고 아  
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사막 같은 여러고 성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위대한 기적  
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병들어 죽어가는 세상에서 생명의  
기적,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 갈 것이다.

\*이 글은 올해 99세 된 황숙희 권사가 올해 초  
펴낸 <남는 건 사랑뿐일세>의 내용을 요약했다.



지난해 이주민 공동체 바자회 현장.



## 안산M센터 ‘올 네이션스 마켓’ 오픈

### 4월 15일 정오 안산M센터 주차장

온누리M미션 안산M센터가 양문교회와 안산시 원곡동 주민들과 함께 ‘올 네이션스 마켓(All Nations Market)’을 오픈한다. 4월 15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안산M센

터 주차장에서 열린다. 올 네이션스 마켓에서는 이주민들이 직접 나라별 음식과 개인 소장품 등을 판매한다. 판매수익금은 지역아동센터 장학금과

아웃리치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안산M센터는 이주민들과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매년 봄과 가을에 ‘올 네이션스 마켓’을 열고 있다.

문의: 010-2959-0817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 대청, ‘희망노트’ 막 오른다

### 4월 30일~5월 2일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대학생들을 위한 집회 ‘희망노트’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11시와 오후 12시에 막 오른다. 희망노트는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청년희망 공간 ‘이룸’이 오늘(1일)

한성대에듀센터(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54)로 이전한다. 이에 따라 Pole2공동체, CH630공동체의 예배시간이 변경된다. Pole2공동체는 오전 10시에서 오전 11시, CH630공동체는 오후 6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으로 변경된다. CH630공동체는 ‘CH PLUS공동체’로 이름이 변경된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일일특강

두란노 바이블칼리지에서 일일특강을 실시한다. 4월 9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주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주제로 김형익 목사(벤살롬교회)가 강의한다.

관심 있는 성도나 목회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6만 원이다. 4월 2일까지 등록하면 4만5천원이다. 행사 당일 등록 가능. 문의: 02-2078-3456

## ‘N공동체’ 예배장소를 찾습니다

### 노량진역 근처 주일 오전

재수생들을 위한 예배공동체 ‘N공동체’가 서울 노량진역 근처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급하게 찾고 있다. 매주 주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이용할 예정이다. 1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 N공동체는 재수생들이 믿음으로 위로와 힘을 얻도록 돕고 있다.

문의: 010-4699-2784

## 9일 나라, 민족, 통일 위한 ‘살롬기도회’

나라와 민족, 통일을 소망하는 ‘살롬기도회’가 열린다. 4월 9일 오후 7시양재 온누리교회 JDS홀에서 열린다. 이날 살롬기도회에서는 정진호 교수(토론토 대학, 평양과기대 교수)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 창조신앙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창조과학을 배우는 ‘창조신앙 아카데미’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 창조신앙 아카데미는 4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Acts29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4월 25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

문의: 010-7292-2349

## 69기 성령수련회 개최

### 4월 21일 Acts29 비전빌리지

69기 성령수련회가 4월 21일 오후 1시 30분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개최된다. 1박2일동안 진행된다. 69기 성령수련회에서는 성령의 역할과 능력을 배운다. 참가신청은 4월 18일까지 아이스쿨이나 전화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

문의: 010-7120-5221

## ‘더 깊은 묵상 세미나’ 4월 17일 개강

여성사역에서 주최하는 ‘더 깊은 묵상’ 세미나가 4월 17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302호에서 개강한다.

더 깊은 묵상 세미나는 5월 29일까지 6주 동안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말씀묵상’과 ‘적용법’을 가르쳐 준다. 참가신청은 4월 24일까지 아이스쿨이나 전화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문의: 02-3215-3677

## 결혼매칭 프로그램 ‘iWe 워크숍’ 개최

### 5월 12일과 19일 오후 2시 청년희망공간 ‘이룸’

결혼매칭 프로그램 ‘iWe 워크숍’이 열린다. 5월 12일과 19일 오후 2시 한성대에듀센터 이룸에서 진행된다. ‘iWe 워크숍’에서는 크리스천들의 올바른 결혼관과 가정경영법을 알려준다. 이정현 대표(러브&대화코칭센터), 김숙경 간사

(크리스천 데이트 전담강사), 천정우 전 도사(회복사역), 이서진 목사(대학청년부)가 강의한다. 참가대상은 1980년에서 1988년 사이에 태어난 형제다. 회비는 3만 원. 참가신청은 이메일로 하면 된다.

이메일: iweonnuri4u@gmail.com



삿포로 기 · 도 · 제 · 목

- 4월 2일(월)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볼 수 있는 러브소나타가 되기를
- 4월 3일(화) 동참하는 일본 교회 성도들과 실행위원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 4월 4일(수) 러브소나타를 통해 많은 결신자와 헌신자들이 생겨나기를
- 4월 5일(목) 스태프와 봉사자들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 4월 6일(금) 이재훈 목사님과 출연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 4월 7일(토) 러브소나타를 준비하면서 물 떠온 하인들의 마음을 깨닫도록
- 4월 8일(주일) 날씨, 안전, 음식, 집회 등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 일대일 사역자 수련회 ‘소통과 협력’

지난달 24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일대일사역팀이 남한산성 묵상의 집에서 일대일 사역자 수련회를 개최했다.

‘소통과 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일대일 사역팀 위원들과 공동체 일대일 사역자 60여 명이 참석해 친목도모를 하고 일대일 제자양육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Wake Up’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Wake Up은 1만 명이 되는 일대일 휴면양육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 내가 만난 하나님



/ 정선인 자매(SNS공동체)

## 하나님 한 분 만으로

7년 전 직장 동료들 따라 난생처음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나는 공허하고 외로웠다. 개인적인 문제까지 겹쳐 전전긍긍하며 괴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 내게 동료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가서 기도라도 해보자”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정말 해결책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양재 온누리교회 특별한초대예배를 드리게 됐다. “함께 기도하자”는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눈을 감았다. 그 순간 환한 광채 속에서 금발의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며 다가와 나를 안아주시는 환상을 봤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용납 받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의 경험은 너무나도 강렬했다. 그날 이후 하나님의 존재와 기도, 성경말씀에 집중을 하다 보니 고민하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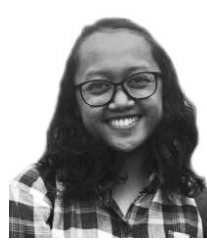
2014년 1월부터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SNS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그해 3월 목사님으로부터 순장으로 부름을 받게 됐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다. 목사님의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배시간마다

고스란히 받아 적었다. 얼마 후에는 공동체에서 주보팀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새가족그룹에서 순장을, 주보팀에서 말씀정리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생의 힘겨운 순간들을 통과할 수 있었다. 말씀정리를 하기 위해 설교말씀을 반복해서 봤던 시간들 덕분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심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요 15:16).

이 말씀은 2018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상황과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내 인생은 매 순간이 기적 그 자체가 되었다. 내 평생의 소원은 한 가지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환한 미소로 고백하고 싶다. 온 맘 다해 주님 한분만을 사랑했다고.

## ■ CGNTV 인도네시아 지사 직원 간증



/ 메기 기자(인도네시아 CGNTV)

## 축복의 통로

안녕하세요. 저는 CGNTV 인도네시아 지사에서 보도팀 기자로 사역하고 있는 메기라고 합니다. 제 고향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남부에 있는 람퐁입니다. 람퐁대학교 4학년 때 가족이나 다름없는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CGNTV에서 실습을 했고, 졸업 후에는 자카르타로 와서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도팀 기자로 인도네시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좋은 소식을 취재해서 한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기자로서 가장 기쁜 일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나병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선교팀이 왔었습니다. 의료선교팀원들은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나병환자들을 기쁘게 섬겼습니다. 저는 그때 나병환자들을 처음 봤습니다. 그들의 사정은 매우 힘들었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들 대다수가 무슬림이었는데 의료선교팀은 차별하지 않고 나누고, 돕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만났을 때도 기억이 납니다. 난민들이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슬펐습니다. 그들을 위

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절대다수가 무슬림이지만 그들로부터 어떤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CGNTV의 사역방향은 선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 사역하다 보면 언젠가 무슬림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동참할 거라고 믿습니다. 무슬림을 위한 초청집회가 열릴 때마다 그들과 대화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가가는 것을 관심이라고 여기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도하는 소식을 통해 그 일을 이뤄나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CGNTV는 현지 교회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현지인 자문위원회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 차세대 교사부흥집회 간증



/ 배은경 교사(수원 온누리교회 유아부)

##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누리교회 교사들이 다음세대 응원단이 되고자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 모였다. 양재 차세대 파워웨이브 교사 한 분이 나와서 간증할 때였다. 그때 유아부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때가 되면 사춘기를 겪을 것을 생각하니 아찔한 기분이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주님께 “제가 있는 자리에 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라고 질문했다.

이상준 목사님의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응답처럼 들렸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컴패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의 말씀도 매우 좋았다. 교사의 목표는 다음세대에 충성된 교사를 양육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또한 교사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슴으로 양육하는 사

람이고, 교사의 모든 능력은 진리에서 비롯됨을 확신하라는 말씀이 와 닿았다. 이 말씀을 통해 지난 3년 여 동안 아쉽고 부족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들여다보고 기도로 함께해왔는지를 생각하면서 회개했다.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큐티말씀으로 나를 위로해주시고 자유케 하셨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후 12:9).

교사는 불완전하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면 주의 능력으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신다.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붙이시고 꺼지지 않게 하신다.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

## ■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 간증



/ 김동수 성도(성동광진공동체)

##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작년 9월, 우리 부부는 대학생 자녀들이 다니고 있던 온누리교회에 왔다. 교회 등록과 새가족교육을 받고 곧바로 일대일 동반자반을 시작했다. 사실 나는 10년 전 회사에서 독일 근무를 갔을 때 한인교회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일대일 제자양육은 삶의 변화가 있는 후에 받게 된 터라 그 은혜와 기대가 그때보다 컸다.

양육자님과 만남은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없고, 편안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신앙의 연륜도, 나이도 나보다 한참 선배이시고 고수이신 양육자님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 예상한 내용과 말씀을 토대로 서로의 신앙과 기도제목 나누면서 양육자님과 나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기도의 동역자를 얻게 돼 든든했다.

양육자님은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먼 거리를 불편해하지 않고 우리 집 근처로 외주셨다. 피곤하고 지칠 만도 할 텐데 언제나 웃는 얼굴로 와주시는 양육자님을 보면서 ‘나도 다음에 누군가를 양육하게 되면 날 섬겨준 양육

자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여줘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며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암송했다.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습관이지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조금씩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늘려갔다. 이전에는 없었던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조금씩 커져 갔다. 말씀들이 어찌나 새롭고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모를 정도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며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양육을 받지 않아서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더 이상 묻어두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일에 사용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기도한다.

## 장로칼럼

### “도곡교육관은 축복입니다”



이해달 장로  
(도곡공동체)

“여기 뭐하는 곳이에요? 학교에 교회 있어요?”

주차 안내하느라 정문에서 있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다. 한번은 70대 후반은 되어 보이는

어르신이 뭐하는 곳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온누리교회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어르신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라고 하시며 자신은 운동장 뒤편 언덕에 있는 아파트에 사신다고 하셨다. 그 어르신의 눈에 비친 도곡교육관은 이러했다.

“주일 아침마다 수백 대의 자동차가 운동장에 들어와 질서정연하게 주차하는 모습이 군대의 열병식을 보는 것 같았어요. 더 놀랐던 것은 경적 한 번 울리는 일이 없고, 다투는 소리 한번 들은 적이 없었어요. 잠깐 사이에 운동장에 있던 자동차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보면서 저 곳이 뭘 하는 곳일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도곡교육관이 세워진지 8년이 되었다. 초창기에는 주일 1부 예배를 200~300명이 드렸는데 지금은 1부, 2부 각각 1,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드릴 정도로 부흥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어 걸어오는 성도들이 많고, 같은 공동체, 이웃에 사는 익숙한 얼굴들도 많다. 서빙고, 양재 온누리교회와 또 다른 정겨움이 있다. 때문에 도곡교육관은 이웃을 전도하기 좋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새가족이 많다.

빙산은 드러난 부분이 10%이고, 가려진 부분이 90%라고 한다. 오늘의 도곡교육관이 있기까지 숨겨진 헌신자들의 열정과 수고가 있었다. 학교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다보니 구석 구석에 쌓인 먼지가 많고, 부서진 채 방치되어 있는 집기들은 교회비품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옮기거나 보수하기가 조심스럽다. 강당

은 정해진 시간 동안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청소하기가 쉽지 않았다. 바로 그때 강남B공동체에서 ‘도곡 러빙핸드팀’을 만들어 학교 관계자들의 양해를 얻었다. 토요일과 주일 아침에 청소를 하면서 도곡교육관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갔다. 이제 어느 곳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쾌적한 예배처소가 되었다.

도곡교육관 주차사역팀은 ‘주차는 예배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섬기고 있다. 매주 예배 1시간 30분 전에 모여 찬양과 말씀, 주차팀원들의 짧은 간증과 기도제목을 나눈다. 준비해 온 간식을 먹고 섬김의 자리로 나간다. 기도도로 준비된 섬김이 즐거워서인지 한번 주차사역팀에 들어온 사람은 꾸준히 섬기게 된다. 주차사역은 순별로 할당된 인원이 나와서 섬긴다는 고정관념을 도곡교육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새가족들도 주차사역팀에서 함께 섬기고 있다. 도곡교육관 주차사역팀이야말로 새가족들이 또 다른 작은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이다. 도곡교육관 주차사역팀이 아름다운 섬김의 모델이 되기까지 강남C공동체 습은 헌신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대형교회 성도는 가끔 군중 속의 외로움을 경험한다. 교인은 엄청나게 많은데 기도제목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예배가 끝나면 떠밀려 나가듯 교회를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아쉬움을 경험했을 것이다. 도곡교육관에는 이러한 아쉬움이 없다. 같은 공동체 식구들이나 이웃들을 만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섬김의 자리에 오면 더욱 그렇다. 안내, 러빙핸드, 주차사역, 중보기도 등 섬김의 자리가 희생이 아닌 축복의 자리로 느껴진다.

하나님이 만드신 도곡교육관을 세워나가는 것이 소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새로 만들어진 도곡공동체도 강남B공동체의 헌신과 강남C의 열정을 본받아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 권사칼럼

### 워킹마리아와 나



김지희 권사  
(이촌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창 1:28).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며 또 우리를 일하도록 디자인하셨다. 그런데 나는 결혼 후에 더 이상 직업을 갖지 않겠다고 결심했었다. 나는 육아와 집안일이 즐거웠다. 육아와 집안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어느새 장성해서 각자의 일을 하며 살고 있다. 가끔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가족들을 볼 때면 위축감과 무력함을 느끼곤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도 직업을 다시 갖고 싶다고 기도했다. 그런데 내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봐야 했고, 교회봉사도 바빴다.

지난해 마리아행전에서 처음으로 ‘워킹마리아를 위한 저녁집회’를 접했다. 나는 그 집회에서 워킹마리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과 긍휼함을 느꼈다. 종일 수고하고 온 워킹마리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들의 무리에 끼지 못하고 워킹마리아들을 위해 기도만 하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나는 다시 하나님께 일을 하고 싶다고 간구했다. 집안일과 교회봉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얼마 전

나는 직업을 갖게 됐다. 그런데 세월이 주는 변화에 놀라고 당황해서 일을 배우는 것이 버겁고 힘들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었다. 가정과 교회가 아닌 곳에서의 일과 관계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하지만 워킹마리아 집회에서 경험한 주님의 사랑으로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워킹마리아들을 위한 말씀훈련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워킹마리아들이 없는 시간을 쪼개서 말씀 앞에 나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고된 일인지 알 수 있었다.

몇 주 전 열린 일터영성 세미나에서 지나간 시간들을 정리해볼 기회가 있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다. 나와 만나는 모든 이들과 화목해지고 진심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직장 내에서 관계의 어려움도 조금씩 나아졌다.

바쁜 일상에서도 주님 앞으로 나아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기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하다. 창세기와 산상수훈 속에서 해답을 찾아 가는 일터영성의 시간이 더욱 기대 된다. 직업의 가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도한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마 5:9).

내가 속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신앙에세이



이상진 목사  
(푸른누리공동체)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된다. 예전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심방과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부쩍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며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들이 많아

졌다.

그분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상담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다.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대다수였다. 불면증은 그나마 약한 증상에 속한다. 공황장애나 우울증과 같이 정신적인 질병에 노출되어 도움을 요청하러 오시는 성도들이 많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에도 이러한 어려움에 공감하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생각’이 바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이다. 악한 영은 죄와 상처의 틈을 통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입하고, 시스템화시켜서 주인 행세를 하려 한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 그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의 시스템을 갖게 된다. 남들이 자신을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다.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자신을 탓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의 패턴이 학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악한 영은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더욱 파괴하게 만든다.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방해한다. 부정적인 생각의 작은 틈이 신앙과 일상, 나아가 인

생까지 만치게 한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이기고 뿌리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감사’에 있다. 감사가 부정적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해법이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엘리슨 리저우드는 연구를 통해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쉽게 사로잡히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은 기분이 좋다가도 사소한 일에 쉽게 감정이 상해버리곤 한다. 반대로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성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엘리슨 리저우드가 제안한 방법은 매일 짧은 시간을 내어 감사한 일을 적는 훈련이다. 이 훈련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물론 육신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경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빌립보서 4장 6~7절에 “염려와 걱정을 뿌리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사도 바울은 감사의 비밀과 능력을 깨달았던 것이다.

시대가 어렵고, 인생의 많은 문제로 허덕일 때 그대로 놀러 살 것인가? 믿는 자라면 오직 감사의 기도로 부정적인 생각과 상황을 이겨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야 한다. 영혼이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믿는 자의 축복이고 사명이다.

감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물론 영혼의 호흡이 멈춘 것과 같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이다.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감사할 때 그리스도께서 불안과 두려움을 평강과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감사로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넉넉히 이김을 주실 것이다.



## 주일강단

〈3면에 이어〉

# 종말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교회는 온갖 물고기를 끌어오시는 은혜의 그물입니다. 끊임없이 찢어진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워주시는 은혜의 그물입니다. 이 그물은 영원토록 은혜의 그물이 아닙니다. 그물이 다 찢 때까지만 은혜의 그물입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 심판의 그물이 됩니다. 마지막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분류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 그물은 어떤 고기든지 담길 수 있는 은혜의 그물이지만 모든 고기가 주인의 그물에 담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없이 구별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 은혜의 그물에 담긴 그 이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나쁜 고기라고 할지라도 은혜의 그물 안에서 좋은 고기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밭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밭처럼 가시밭처럼 길 밭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도록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돌밭도, 가시밭도, 길 밭도 좋은 밭으로 기경될 수 있는 것처럼 은혜의 그물에 담겨있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되었지만 예전처럼 살도록 허락되지는 않았습니 다. 은혜의 그물에 차별 없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은혜의 그물 안에서 그대로 머물도록 내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목표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까지 모든 것을 품고 이끄시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안

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49~50 절).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을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인생의 비극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대면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지옥이란 초대 교회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서 개종시켜려고 만들어낸 교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때 불신자요 불가지론자였다가 믿음의 삶을 받아들이게 된 C. 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이것만큼 버리고 싶은 교리가 없다. 하지만 성경,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 교리를 전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이 교리는 완벽하게 합리적이다. 지옥을 제대로 믿지 않고서 천국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생각하기 끔찍하다고 해서 지옥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선하시다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셔야 합니다. 악이 온전히 멸해지는 종말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명

됩니다.

스펠전 목사님은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끊임 없이 아픔과 슬픔 속에서 중보기도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 몸을 밟고 가게 합시다. 그들이 멸망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지옥이 차야 하더라도 우리는 지옥이 차지 않게 최대한 노력합시다. 경고나 기도를 받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은혜의 그물 속에 있습니다. 변화가 가능할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중보하고, 우리 스스로도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찢어진 그물을 기울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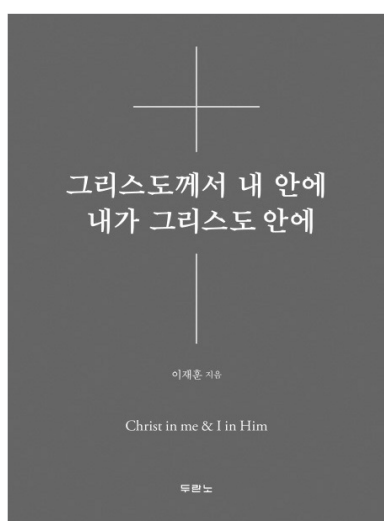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과 공동체의 찢어진 그물을 기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찢어지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은혜의 그물에 들어와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두란노 신간

###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재훈 저 | 두란노 | 12,000원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재훈 담임목사가 삶과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혹시 역사 속에서 잠시 살아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삶과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참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책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우리의 인생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방향이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성도는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스스로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많은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지만 정작 내면에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잊은 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다. 이재훈 목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를 펴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재훈 목사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

는 비밀임을 깨우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 번 고백하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한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셨다. 이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다. 이 약속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다. 이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다.

진정한 삶은 영원한 삶이다. 인간이 모든 것을 갖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만족이 없다.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산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만끽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삶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이재훈 담임목사는 다음과 같이 권면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영원을 경험하는 삶으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Acts29

## 게시판

2018년 4월 1일(주일) | 제1190호

### 서빙고

02.793.9686

####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 월요 어노팅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 문화 미디어 홍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3:30 선교관 203호

####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 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 이스라엘 홍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 마리아행전 홍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재)출발 15:00

####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를

####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모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 9시에 뜨는 별 예배 찬양인도팀 모집

시간: 서빙고 주일 7부 예배(오후 9시~)

모집: 성(남, 여), 화(여(남, 여)

자격: 온누리교회 등록 및 세례교인, 공동

체 교역자 추천자

문의: 박근범 전도사(010-4939-2627)

#### 창조신앙아카데미

일시: 418(수)~516(수) 오후 7시~9시

장소: 서빙고 신관1층 Acts29홀

신청: 아이스콜 등록

문의: 010-7292-2349

#### 안산M센터 주방 조리사 모집

근무: 주중(수요일 10시~15시), 주말(토요

일 오후 13시~21시), 일요일(9시~15시)

급여: 내사 규정에 따름(4대보험 포함)

위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50-2 온누리

M센터 4층 식당

문의: 장미숙 간사(031-491-9650)

#### CMN 마하나임 국내 아웃리치

일시: 4월 22일 일요일 오후 2시~6시

장소: 남양주 온누리 교회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프라자)

사역: 의료사역, 미용사역, 수기치료

문의: 010-8898-3719

####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 양재

02.570.7430

####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칼럼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그리스도 안에서  
더 멀리 더 가까이

개국 13주년

# CGNTV 개국 13주년 감사의 열매

“온 세상이 복음으로 하나되기까지 CGNTV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송으로  
더 멀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중



2005-2007

2008-2011

2012-2015

2016-현재



##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TV 개국

2005.3

선교지를 위한 하나님의 꿈  
CGNTV 위성방송 시작

2005.3

‘드림온 캠페인’ 런칭(선교사를 위한  
위성 안테나 설치 캠페인)

2007.9

광고 없는 ‘순수복음방송’  
CGNTV 정기후원 런칭



## 효과적인 미디어선교를 위한 맞춤 플랫폼 개발

2008.6

CGNTV 모바일 서비스 런칭

2008.10

IPTV 서비스 시작

20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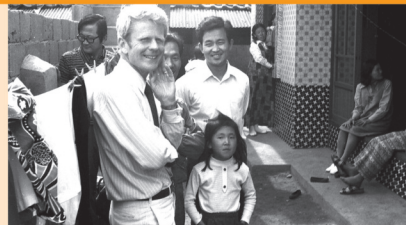
제작 스튜디오 HD전환

2010.5

스마트폰 서비스 시작

2011.4

인터넷 초고화질 방송 서비스 시작



##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깨우는 다큐멘터리 제작

2012.11

다큐 <스마일 라크로즈>  
환태평양영화제  
베스트 미션 필름상 수상

2013.3

개국특집다큐  
<은혜의 강 아마존> 방송

2015.4

내한선교사 130주년 특집다큐  
<블랙마운틴-잊혀진 시간을  
찾아서> 방송

2015.12

다큐 <MK의 고백> 한국기독교  
언론대상 기독교선교부문상 수상



## 선교지와 차세대를 섬기는 새로운 콘텐츠 개척 (영화, 드라마, 모바일 콘텐츠)

2016.6

기독교 방송 최초 웹드라마  
<교회오빠의 연애QT> 런칭

2016.12

모바일 콘텐츠 KNOCK 미니콤  
<두근두근 마카롱> 런칭

2017.4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전국 극장 개봉  
(누적관객수 12만 3천여 명)

2017.12

TV 특집단막드라마  
<다시 봄> 방송  
KNOCK 미니휴먼다큐  
<현목이의 미니멀라이프>  
나눔기부부문 우수상 수상



IPTV 기독교방송  
시청률 (2017년)



국내외  
주요 콘텐츠 어워즈



정기후원자  
30,677명



소셜플랫폼 팔로워  
464,519명

개국 13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